

연극·뮤지컬계 지역출신 연출가·희곡작가들 약진
중앙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 지역 공연도 참여
위성신·고선웅·최치언·선옥현·김은성 등 활약

올니버스 연극 '사랑에 대한 다섯개의 소묘'는 보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 작품이다. 각기 다른 사랑이야기는 웃음을, 눈물을 전한다. 무려 18년 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전히 공연 중이고 뮤지컬로도 제작됐다. 연출을 맡은 이는 위성신(50·극단 오늘 대표)씨. 장흥이 텃자리다.

또 최근 열린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 '빛깔 아리랑'의 작가 김은성씨와 연출가 유희성씨 모두 지역 출신이다.

연극과 뮤지컬계에 지역 출신 연출가와 희곡작가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에서 제작하는 작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 공연계까지 풍성해졌다.

위씨는 순천시에서 제작한 뮤지컬 '태백산맥'(18일~20일 순천문화회관·무로 공연)의 연출을 맡았다. 순천시립예술단원,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배우들과 작업중이며 소설 '태백산맥'의 수많은 인물 중 염상규와 염상진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그는 소극장 연극·뮤지컬의 흥행사다.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를 비롯해 10년째

공연중인 '늬은 부부 이야기', '열쟁이 유씨', '그대를 사랑합니다', '친정엄마'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지난해 연극 인생 20년을 맞은 그는 '위성신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다. 한명의 연출가가 만든 작품만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연극상 등을 휩쓴 5월 연극 '푸르른 날에'의 연출가 고선웅(46·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도 눈에 띄어 볼만하다.

경기 여주에서 태어나는 했지만 부모님이 무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대부고를 졸업해 광주와 인연이 있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으로 등단한 그는 '늬은가는 기술'로 2012년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을 받았으며 올해 영화연극상도 수상했다. 오는 30~31일(광주문화회관)에는 자신이 이끄는 극단 마방진과 함께 '갈로 막베스'를 공연한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바꾼 작품으로 2010년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수상작이다.

영양 출신으로 대한민국 연극계가 가장



최치언



위성신



김은성



고선웅

공연계 이슈 메이커... 그들을 주목하라

주목하는 작가 중 한명인 최치언(44)씨는 시, 소설, 희곡 세 분야 등단작가다. 시 '흑백 사진'(1999년 동아일보)에 이어 소설 '석탄 공장이 있는 시에 관한 농담'(2001년 세계일보)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마음'으로 우진문화재단 장막희곡상을 수상하며 희곡으로도 데뷔했다. 이어 '언니들'로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미친국'으로 대산문학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광주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으로 주목받았다. 1980년 광주를 배경삼아 자해공감을 도모하는 세명의 친구를 통해 5월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남 출신 연출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였던 고(故) 윤영선 극작가의 미발표 유작을 재구성한 '죽음의 집'을 무대에 올렸다. 또 '달무리'를 연출했으며 장편 소설 '약의 썩도 퍼냈다.'

전남대 연극반 출신으로 배우로, 작가로, 연출가로 활동하는 선옥현(46·극단 필통 대표)씨의 활약도 눈에 띈다.

'의자는 잘못없다' 등의 희곡으로 유명한 선작가는 최근에는 김희하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봄바 오리지널' 버전을 연출했다. 그는 14대 품바이기도 했다. 그가 이끄는 극단 필통의 '물싸움'은 올해 일수가 진행한 극+관에서 공연되는 등 전국에서 러브콜을 받는 인기 작품이다.

올해 보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극 '별'을 통해 광주시립극단과 인연을 맺은 함평 출신 김은성(37) 작가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그는 '목란언니'로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동아연극상 희곡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를 휩쓸었다.

그밖에 광주 출신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김경주씨 역시 최근 서울시극단의 '나비잠'을 집필, 연극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인성고 출신 예술인들 무대 펼쳐진다



류재웅 작 '산수유 마을'

15~21일 '인성문화예술제'

광주인성고총동문회(회장 선정민)가 15~21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에서 '2013 인성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인성문화예술제는 동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동문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음악회로 꾸며진다.

15~21일 금호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류재웅, 최인선, 박구환, 최철, 김상욱, 박정웅,

윤익, 정선휘, 조문현, 김영태, 백상욱씨 등 모두 20명의 작가들이 회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19일 오후 6시30분이다.

19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가연하비의 국악연주 '궁타령의 맛', 명인 김향순씨의 '흥보가', 바리톤 박영환씨의 '정산에 살리라'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씨의 '차르다슈'로 꾸며진다.

이 밖에도 소프라노 김선희, 색소폰 김성진, 바리톤 김백준, 테너 김백호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묵직한듯 은은한... 스트라디바리우스 선율

에라토 앙상블 광주 연주회, 오늘 문예회관

'바이올린 명가(名器)를 만나다.'

에라토 앙상블 광주 연주회가 15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에라토 앙상블은 대구 가톨릭대 양성식 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아 지난 2011년 창단한 실내악단으로 단체 이름 '에라토'는 그리스 신화 중 노래를 주관하는 뮤즈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특히 네 명의 연주자가 대당 100억 원이 넘는 세계적인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들려줘 눈길을 끈다. 1697년 제작된 '데인빌' 등 모두 4대의 악기로 들려주는 곡목은 비발디의 '네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다.

연주자는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하노버 국제콩쿠르 1위 등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일본 쇼비 가쿠엔 교수 니카자와 키미코, 양성식 음악감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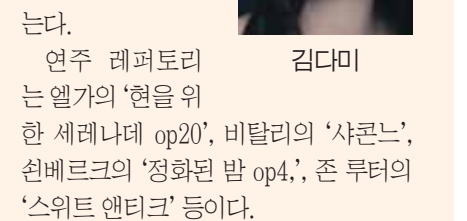
이번 음악회에서는 스위스 크랑스 몬타나 음악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활동



양성식



솔로모민초



김다미

문의 02-541-31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리듬 되어



'Go on a ride 2'

이호국 개인전 고흥 도화천미술관

하나하나 찍힌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이 선들이 캔버스를 오가며 리듬을 만들어 낸다. 짙은 청색의 점과 선이 만들어 내는 시릴 정도로 따뜻한 인물과 사물, 풍경이 한없이 정겹기만 하다.

점과 선으로 작품 세계를 표현해내고 있는 서양화가 이호국씨가 오는 31일까지 고흥 도화천미술관에서 '점 그리고 선을 긋다'(Draw the dot the Line)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씨의 5번째 개인전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표현주의와 개념미술 사이에서 개인적 감성의 조형성을 보여주는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습을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주변의 바쁜 일상들과 정지된 상황들을 캔버스에 점과 선으로 풀어냈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서울과 광주, 필리핀 등에서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국정예작가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1-832-13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글루 박주환